

대중음악을 통한 주제 전달 -BTS 디지털 싱글 Dynamite를 중심으로-

문유민¹, 조태선^{2*}

¹한국K-pop 고등학교, ²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Communicate the theme through popular music Based on BTS digital single Dynamite

You-Min Moon¹, Tea-Seon Cho^{2*}

¹High School of K-pop Arts

²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그룹 BTS의 싱글 앨범 'Dynamite'의 형식과 악기 구성, 연주 패턴 등 작품 분석을 통해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사운드로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연구해 보았다. 이 곡을 통해 힙합을 기반으로 한 음악에서 벗어나 디스코 팝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음악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삶의 소중함과 인생의 특별함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내었기에 현시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곡의 구성은 총 92마디로 4마디 전주 외에는 8마디 형식을 띄며 화성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IVm-IIIm7-V7-IM 진행으로 후반부의 전조 외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 구간별 연주법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기의 구성을 달리하고 코러스의 악기화를 통해 다양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단순히 시대의 유행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의 분위기나 이념, 혹은 개인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하게 소비되는 상업 음악의 현실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대중음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음악적 관점에 기반하여 연구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performed a work analysis on popular music artists' expression of message through music. In particular, this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format, instrument composition, and performance patterns of the BTS music group's single 'Dynamite'. Essentially, this single breaks away from hip-hop-based music and introduces a new disco-pop genre to promote musical change. Moreover, this single or song is highly meaningful during the present Corona pandemic because it conveys the importance and specialty of life. The composition of this song is 92 bars, presented in 8 bar-segments except for the four-bar introduction. In addition, there is no structural change in this song except in the second half's precursor, which has a harmonically complex IVm-IIIm7-V7-IM progress. However, the Dynamite's instrument composition differs, and its chorus's instrumentalization expresses various atmospheres even though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thod of performing by section. Hence, this analysis indicates that popular music has more influence and meaning than simply reflecting the trend of the times. It also indicates that popular music conveys the atmosphere, ideology, and an individual's opinion of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mote an in-depth popular music development away from the reality of commercial music that is simply consumed.

Keywords : Message, Performance Pattern, Instrument Composition, Chorus, Korean Pop

*Corresponding Author : Tae-Seon Cho (Chungwoon Univ.)

email:entheos@chungwoon.ac.kr

Received March 7, 2022

Accepted April 1, 2022

Revised March 29, 2022

Published April 30, 2022

1. 서론

2013년 데뷔한 BTS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데뷔 초부터 가상의 세계관을 구축하며 자신들의 음악이 단순히 상업적으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닌 곡 안에 내포된 메시지와 주제를 전달하는데 노력했다. 그렇기에 그들이 이룬 업적은 단순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곡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들의 철학과 메시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BTS는 발매하는 앨범들을 통해 청춘들의 생각, 꿈, 삶과 사랑 등의 스토리를 담아내며 시리즈로 구성된 앨범을 발매했다. 주요 수록곡들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세계관과 주제 의식에 관한 내용을 표현한다[1].

2020년 9월에 발표한 ‘Dynamite’는 주로 어둡고 철학적인 세계관을 쌓아오던 그들이 밝고 경쾌한 세계관으로 확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환하게 불을 밝힐 거야"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무력감과 허탈감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냈다[2].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디스코 팝(Disco Pop) 장르로, 데뷔 이래 처음 영어로 곡을 소화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 결과 한국인 최초로 Billboard Hot 100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며 그래미 어워즈와 같은 시상식에도 노미네이트 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Dynamite를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 논문은 드물었으며 그마저도 음악적 연구 분석은 방탄소년단의 Dynamite 작품 분석 (정진 2020), K.pop 연구 :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를 중심으로 (한규리 2020) 뿐이었다. 학술적으로 음악적인 연구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대중음악의 더 나은 발전이 가능하다.

이 곡은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삶의 소중함과 인생의 특별함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기에 현시점에서 의미가 깊은 곡이라 사료되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BTS의 밝은 세계관의 첫 시작이자 K-POP을 넘어 세계를 휩쓴 Dynamite의 구조 형식에 따른 사운드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메시지와 철학들을 어떻게 담아냈는지에 대해 대중음악의 심도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곡의 형식(Song Form)과 악기 구성,

연주 패턴 코러스 분석 등을 통하여 사운드의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곡의 형식에 따라 구간(Part) 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해당 구간에 등장하는 악기들의 연주법을 채보하는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마디(bar)의 표기를 위해 도돌이표 및 반복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악기의 구성이 많고 연주법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구간은 편의상 2마디만 채보하였다.

3. 분석

3.1 곡의 구조와 구성

Table 1. Composition of songs

Part	Bar
Intro	4
A	8
B	8
C	8
2A	8
2B	8
2C	8
D	8
2D	8
3C	8
4C	8
3D	8

위의 표는 92마디로 구성된 Dynamite를 마디(bar) 별로 표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주(Intro)를 제외한 모든 구간은 8마디 기준의 형식이며 C#m F#m7 B7sus4 E 다이아토닉(Diatonic) 코드 순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1과 같다[3].

The figure shows a musical staff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two sharps (F# and C#). It contains four measures of music, each with a single chord. The chords are C#m, F#m7, B7sus4, and E. Below the staff, the corresponding Roman numerals are listed: IVm, IIIm7, V7sus4, and I.

Fig. 1. Dynamite Chord

C 구간과 D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은 한 마디당 한 코드를 연주하고 하이라이트인 C 구간과 D 구간은 한 마디당 두 코드를 연주하는 형식이다. 3C 구간의 전조 부분에서부터는 온음으로 1키 상승되어 D#m G#m7 C#7sus4 F#의 코드로 후주 없이 곡의 엔딩까지 반복되며 곡의 진행은 E 키의 IVm-IIIm7-V7-IM으로 분석할 수 있다.

3.2 악기 편성 및 연주법

Score of Dynamite Intro 4bar. The score includes a vocal line with lyrics: "Cause I I I'm in the stars - tonight so watch me" and "bring the fire and set the night - a light". The piano accompaniment is marked "<E.Piano>". Chords C#m, F#m7, B7sus4, and E are indicated above the staff.

Fig. 2. Score of Dynamite Intro 4bar

위 그림은 Dynamite의 전주(Intro) 4마디 악보이다. 못 갖춘 마디로 시작되는 첫 4마디는 이 곡의 메인 테마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컬과 함께 E.P로만 구성되어 있다.

많은 경우 곡이 시작함과 동시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후크송 형식의 구조를 가진 곡들이 많은데 이 곡 역시 C 구간의 테마를 보컬과 E.P 두 가지로 간소화하여 전주로 사용하였다[4]. E.P는 1마디 1박, 2박 1/2, 4박 1/2에 연주하고 2마디 2박 1/2, 4박 1/2에 연주하며 3, 4마디는 1, 2마디와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16비트(Beat) 싱커페이션(Syncopation)으로 정박이 아닌 리듬으로 연주하고 있다.

Fig. 3은 전주 이후 5마디부터 12마디까지의 A 구간을 나타낸 악보로, E.P와 보컬, 베이스, 드럼의 킥이 추가되어 진행된다. 첫 음과 끝 음이 같은 E(미) 음이며 코드상 화성적으로 보았을 때 완전 정격종지(Perfect Cadence)로 볼 수 있다[5].

베이스는 E.P와 마찬가지로 16비트 싱커페이션 리듬에 코드 톤을 기반으로 순차 진행으로 연주했고 드럼의 킥은 1, 2, 3, 4박에 모두 연주하여 비트를 채워주고 있다.

Score of Dynamite A Part Bass 4bar. The score includes a vocal line with lyrics: "Shoes on get up in the morn milk let's rock and roll - Cup of King Kong kick the drum like a rolling stone rolling on". The bass guitar part is shown on two staves. Chords C#m, F#m7, B7sus4, and E are indicated above the staff.

Fig. 3. Score of Dynamite A Part Bass 4bar

12마디 4박에서 클랩(Clap)의 사운드를 추가하여 B 구간으로 넘어가는 긴장감을 고조시켰으며 12마디 3박에 리버스(Reverse)를 이용한 사운드 효과를 준 뒤 4박에서 클랩이 나오게 함으로서 아주 작은 요소들에서도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Score of Dynamite B Part Drum 8bar. The score includes a drum part with lyrics: "This is getting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heavy is sweet as Yeah this beat cha ching like honey money Dis co overload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 up (Hey) so let's go". The drum part is marked "Closed H.H."

Fig. 4. Score of Dynamite B Part Drum 8bar

Fig. 4는 13마디부터 20마디까지의 드럼 악보이다.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는 가사말인 "This is getting heavy"에 걸맞게 드럼과 기타가 동시에 더해지며 앞의 12마디와는 다른 분위기로 전환되고 처음으로 코러스(Chorus)가 추가되기 시작한다.

드럼은 클로즈 하이햇으로 진행되며 2마디 간격으로 4박 1/2에 오픈 하이햇을 넣어 연주하였고 각 마디마다 2박, 4박, 4마디 3박 1/2에 클랩을 배치하여 경쾌하고 신나는 느낌을 가미하였다. 마지막 20마디에서는 드럼이 연주하지 않고 20마디 2박에 클랩만 배치함으로써 브레이크(Brake)의 느낌을 극대화하였고 20마디 3박에 FX 계열의 상승하는 사운드를 넣어 C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 베이스만 20마디 1, 2, 4박에 연주하여 곡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효과를 주었으며 4박에는 드롭 형태의 슬라이드를 넣어줌으로써 분위기를 전환 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 구간에서 코러스는 13마디부터 16마디까지 옥타브 아래 유니즌으로 더블링 형식의 코러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17마디에서 20마디까지는 옥타브 위 유니즌을 더해 보컬 사운드를 위, 아래로 풍성하게 표현하였다.

기타는 두 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B 구간에서는 한 기타만 연주되며 하나의 음으로 연주하는 기법인 싱글 노트(Single Not)[6] 기법으로 리듬을 가져가며 옥타브로는 왼손 뮤트와 한 음을 동시에 내는 스텝스(Skank)[7] 기법을 연주하고 있는데 연주법은 아래 Fig. 5와 같다.

Fig. 5. Score of Dynamite B Part Guitar 4 Bar

마찬가지로 B 구간 마지막 8마디에서는 연주를 하지 않으며 브레이크 구간을 확실하게 표현하였다. 2A 구간부터는 스텝스 기법으로 연주하며 2B에서부터 싱글 노트 라인드 스텝스 기법으로 연주, 세컨드 기타가 핑키 리듬을 연주하며 1B보다 더 밝고 신나는 느낌으로 발전시켰다.

Fig. 6. Score of Dynamite C Part 4 Bar

위 그림 Fig. 6은 21마디부터 진행되는 곡의 하이라이트 C 구간의 악보로 앞서 말한 모든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며 곡의 긴장감이 고조된다. 2절에서 더욱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위해 세컨드 기타와 브라스(Brass)는 추가되지 않고 연주되는 모습이다.

멜로디의 진행 형식을 살펴보면 메인 테마를 두 번 반복 후 다른 멜로디를 사용하였다가 다시 메인 멜로디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Fig. 7과 같다.



Fig. 7. Score of C Part Melody

멜로디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중가요에서 에너지 증가 효과를 위해 가장 하이라이트인 C 구간에서 상향 진행되는 멜로디 라인을 표현하는 경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이 곡은 가장 높은 음에서부터 하향 진행되어 내려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칫 에너지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멜로디의 반복으로 인해 하향 진행 후 다시 최고음으로 단번에 상승하는 견인 효과를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증가의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메인 멜로디의 반복 이후 B 음에서 옥타브 위의 B 음까지 순차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며 곡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코러스는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 가사인 “Cos ah ah I’m” 과 “So watch me bring the fire” 부분에만 넣어주어 사운드를 확장, 감소시키며 메인 보컬을 돋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주었다. 뒤이은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 and soul” 과 “light it up like dynamite”는 메인 멜로디와 같은 음으로 더블링한 음에 오토튠 효과를 주어 보컬의 질감을 신스처럼 활용, 보컬 코러스를 악기화시켰다.

아래 그림 Fig. 8은 2A 구간의 2마디 악보로 1C 구간이 끝나자마자 간주 없이 시작된다. 1A와는 다르게 E.P, 드럼, 베이스, 기타가 모두 연주되어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는 멜로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1A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2A 초반부터 오토튠을 이용한 보컬의 코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층 더 강한 사운드로 만들었으며 1C 구간과 같이 특정 가사에만 더블링 하여 사운드의 질감을 달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wall’

과 ‘dawn’의 가사에서는 동일음이 아닌 3도 위의 화음들도 오토튠 시키며 악기로서의 느낌을 극대화했다.

E.P와 베이스는 1A와 동일하게 진행, 1A에 비해 볼륨만 증폭되었고 기타는 1C와 같은 패턴으로 연주하여 색채감만 주었다. 드럼 또한 동일한 연주로 4마디마다 3박 1/2 와 4박에만 클랩을 연달아 배치하는 변화만 주었으나 1A에 비해 훨씬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Fig. 8. Score of Dynamite 2A Part 2bar

아래 그림 Fig. 9는 37마디부터 시작하는 2B 구간으로 세컨드 기타가 등장하고 그 외의 악기들은 1B와 같은 형식으로 연주하여 오로지 기타만으로 사운드를 변화시켰다.

2B 구간의 코러스는 1B 구간과 마찬가지로 오토튠을 시키지 않은 옥타브 아래 유니즌으로 진행되는데 41마디부터 44마디까지의 4마디는 옥타브 위 유니즌을 사용하지 않고 옥타브 아래 유니즌만 사용하여 1B와 다른 느낌을 주었다.

이어지는 2C 또한 2B부터 등장한 세컨드 기타로만 사운드 변화를 주었으며 악기의 구성부터 코러스의 구성 모두 1C와 동일하고 마지막 마디 3박 1/2부터 브라스가

등장하여 후반부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Fig. 9. Score of Dynamite 2B Part Guitar 2bar

Fig. 10. Dynamite D Part Brass 4bar

위 그림 Fig. 10은 D 구간의 악보로 새로운 멜로디가 추가되고 브라스(Brass)가 기존의 라인을 연주하며 곡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음은 듣는 이에게 각인시킴으로서 중독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D 구간의 멜로디 특징은 E 음으로 전반적인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음을 8분 음표와 16분 음표 2개의 1박으로 구성하여 2박까지 진행하다 3박에서 16분 음표 2개 8분 음표 1개의 변박을 준 후 4박에서 원래의 리듬으로 돌아오는 구성이다. 동일한 음으로 만들어진 멜로디도 리듬적인 요소로 인해 훌륭한 멜로디가 될 수 있는 좋은 예시로 볼 수 있다. 보컬의 멜로디가 57마디부터 원래의 테마로 돌아가고 코러스는 화음 성향의 코러스가 아닌 같은 음을 여러 번 겹치는 더블링 형식의 코러스를 사용하여 보컬의 질감을 단단하게 만들어 후반부 보컬의 소리에 파워를 더해주고 있다[10].

뒤이어 바로 진행되는 2D 구간은 앞서 나온 1D 구간의 멜로디 테마로만 진행된다. 한껏 과열된 분위기를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드럼과 보컬, 코러스만으로 61마디부터 64마디까지 진행된다. 64마디 4박에서부터 브라스 연주가 시작되고 1기타와 베이스가 리듬 위주의 연주를 하며 밝은 에너지를 이어가게 된다[11].

오토튠을 사용한 코러스를 마디별로 점진적으로 추가하여 자칫 같은 멜로디와 같은 가사의 반복으로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구간을 다양하고 재치 있게 표현하였다.

Fig. 11. Dynamite 3C Part Sheet Music 2bar

위 그림 Fig. 11은 3C 구간의 마지막 2마디를 표기한 것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69마디부터 72마디까지 4마디는 인트로의 구성처럼 보컬과 E.P의 싱커페이션 연주로만 구성하여 분위기를 다운시켰다. 오토튠 시킨 코러스를 옥타브 아래 유니즌으로 채워 로우의 사운드를 강조하며 분위기를 더욱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 동일한 가사와 멜로디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악기 구성에 따른 사운드의 변화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구간이다[12].

이후 73마디부터 기타와 클랩이 다시 분위기를 상승시켜주는 견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클랩은 각 마디 2, 4박에 배치하였고 74마디 3박 1/2에 추가로 배치하여 작게나마 분위기 전환을 시켜준다. 이후 76마디에서는 모든 악기가 연주하지 않고 드럼이 탐을 이용한 필인과 75마디에서부터 길게 상승하는 FX 사운드 효과를 주며 분위기를 한 번에 빌드 업하는 효과를 주었다.

Fig. 12. Dynamite 4C Part Sheet Music 2bar

Fig. 12는 4C 구간의 악보이다. 극적인 분위기를 더 해주기 위해 조성을 반키 올려 전조하고 모든 악기들이 연주하며 마지막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대부분의 노래들처럼 보컬이 애드리브 라인을 추가로 넣어주며 앞선 C 구간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만들었다. 코러스 또

한 기존 C 구간의 라인에 오토튠 효과를 주지 않은 화음 성향의 코러스가 더해져 보컬 사운드를 풍부하게 표현해 냈다[13].

이어지는 마지막 3D 구간도 악기 구성과 코러스의 큰 변화 없이 전조를 통해 극적으로 상승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마지막 구절의 “Little funk and soul”에서의 코러스만 오토튠을 사용한 더블링을 추가해 곡이 마무리되기 전 강조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보컬 또한 앞선 C 구간처럼 애드리브를 이용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후주 없이 보컬과 악기 모두 한 번에 사라지는 마무리로 곡을 완성 시켰다[14].

3. Discussion

BTS에 관련된 선행 연구 논문들은 많은 주제와 방대한 양이었지만 음악적 분석에 기반한 관련 선행 연구 논문은 다양하지 않았다. 특히 Dynamite의 관련 논문들은 K-POP의 현상에 대한 연구 등에 관한 것들이었고 음악적 연구 목적을 가진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 논문은 곡 분석을 통해 전달하려는 주제와 메시지를 어떻게 음악적으로 풀어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오토튠 기법을 사용한 더블링 위주의 코러스들은 악보로 담아내기 어려움이 있었다. 전주를 제외한 모든 구간은 8마디 기준으로 악기 구성에 차이를 두었지만 반복되는 같은 구간별로 코드와 악기의 연주법 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15].

멜로디 및 모든 코드 구성음에서 리딩톤 D# 음을 사용하지 않았고 기능 화성적으로 토닉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안정적인 화성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통음인 E 음을 Dynamite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여 안정성을 높여 주었다[8].

또한 E 메이저 다이아토닉 스케일 코드 진행인 곡의 첫 시작이 마이너 코드인 C#m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드로 시작되는 것보다 밝은 느낌을 주지 못하지만 디스코 등 다양한 리듬들을 사용하여 밝은 느낌을 한층 더 돋보이도록 해주었다.

그 예로 3C 구간 4마디는 기존의 악기들이 상승을 위해 잠시 연주되지 않는데 같은 코드와 연주에도 불구하고 신나는 느낌보다는 Dynamite가 내포한 곡의 의미처럼 코로나 19로 인한 무력감과 허탈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같은 가사와 멜로디임에도 악기의 구성과 코러스 등을 통해 허탈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희망을 느끼게 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Dynamite는 BTS가 기존에 추구하던 힙합 장르에서 벗어나 음악적인 영역을 넓혀감과 동시에 앨범마다 그려지고 있는 청춘들의 아픔과 성장에 관련된 세계관을 벗어나는 첫 시작이 되었다. 이후 발매된 'Butter', 'Permission to Dance', 콜드 플레이와 함께한 'My Universe' 등의 앨범들만 살펴봐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세계관으로 확장하였다는 알 수 있다.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CD, LP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음반 소비를 벗어나 다운로드 (download), 스트리밍 (streaming) 등 새로운 디지털 음원 소비 방식들이 등장하면서 음악 시장은 빠르게 변화해 왔다[9]. 그로 인해 대중음악이 사회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은 뒤로 한 채 유행하는 음악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업의 범주에 가까워지고 있다.

음악 속에 녹여낸 메시지들은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투영하기도 하고 시대의 정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빌리 홀리데이(Billie Holiday)의 Strange Fruit는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비참한 삶과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얘기했고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Billie Jean은 본인을 둘러싼 루머를 해명했으며 핑크(Pink)는 Dear Mr. president라는 곡을 통해 당시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W. Bush)에게 편지 형태의 노랫말로 미국의 국내외 상황을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는 다르게 최근 발매되는 국내 음악들을 살펴보면 라임을 이용한 의미 없는 가사들의 나열을 통한 단순히 재미만을 쫓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비주류였던 힙합 문화가 주류 음악으로 부상하면서 재치 있는 라임과 편치라인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대두되며 메시지의 전달보다는 창의적인 가사의 전달이 각광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데뷔 때부터 꾸준히 자신들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곡을 통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BTS의 노력은 비평가들에게 팬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들만의 세계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비틀즈(The Beatles)와 함께 이름이 언급되는 업적이 되었다. Dynamite뿐만 아닌 그들의 다른 노래들 또한 단순히 대중들에게 시시각각 소비되기 위한 음악이 아닌 자신들의 메시지와 철학을 담은 그들의 방식이 케이팝 문화 전반에 자리 잡아 의미 없이 소비되고 버려지는 곡들의 생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K-POP 종사자들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References

- [1] J. E. Jung, "A Study on Storytelling Strategies for K-Pop : Focusing on BTS." Research on the cultural industry. pp.63-72. March. 2019
DOI : <https://doi.org/10.35174/JKCI.2019.09.19.3.63>
- [2] Namuwiki. Dynamite.
<https://namu.wiki/w/Dynamite>
- [3] J. Jeong. "Analyzing Dynamite works by BTS." Popular music -.pp383-420. May 2019
- [4] H. G. Kang, and H. J. Ko "Analyzing K-POP's Music Patterns." Digital Convergence Research 11.3 pp95-100. Nov. 2013
- [5] G. R. Han "K.pop Research."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a master's thesis in Korea, Seoul, 2021.
- [6] D. H. Lee (Lee Doo-heon's) Studio rhythm guitar. Seoul: Lee Jeong-seon Music History, 1998
- [7] D. H. Lee (Lee Doo-heon's) Studio rhythm guitar. Seoul: Lee Jeong-seon Music History, 1998.
- [8] J. Jeong. "Analyzing Dynamite works by BTS." Popular music -.pp383-420, 2021.
- [9] J. W. Yoo, J. H. Hyung, and J. Y. Lee "Consideration of digital sound source characteristics preferred for download/streaming." Marketing Research, pp1-21, Jan 2021
DOI : <https://doi.org/10.15830/kmr.2018.33.1.1>
- [10] B.G. Park, T.S. Cho A Study on Jamaican music Used in Moombat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6, pp. 273-280, 2021
DOI : <http://dx.doi.org/10.14400/JDC.2021.19.6.273>
- [11] H.S.Han, T.S. Cho Analysis of the use of tuplet by drummer Anika Nill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7, pp. 245-251, 2021
DOI : <http://dx.doi.org/10.14400/JDC.2021.19.7.245>
- [12] K.J. Kim, T.S. Cho A Study on Creativity in the Funk Drumming: Focused on David Garibaldi,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9, pp. 217-228, 2021.
DOI : <http://dx.doi.org/10.14400/JDC.2021.19.9.217>
- [13] S.W. Jeon, H.Y. Park. A Survey on the Use of Music by the Baby Boomer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12, p37-46, 2020.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0.18.12.037>
- [14] H.G. Kim, Y.H. Kim. Design of a Smart Music Learning Device that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using a transparent touch pan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12, p127 - 132, 2020.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0.18.12.127>
- [15] S.H. Cho. A Suggestion and policy for a field of popular music- Based on necessity and establishment of academy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77-83.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337>

문 유 민(You-Min Moon)

[정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외래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한국 K-pop 고등학교 산학 겸임교사
- 2012년 5월 ~ 2016년 2월 : 모던 K 실용음악 학원 보컬 강사
- 2015년 9월 ~ 2016년 4월 : POWER VOCAL 보컬 강사

<관심분야>

실용음악, 작.편곡, 보컬, K-pop

조 태 선(Tea-Seon Cho)

[종신회원]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 회장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실용음악교육협의회 회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 회장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관심분야>

보컬, 싱어송라이터, 작.편곡, k-pop